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3월 16일

케이스탯 2023년 3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4%, 소폭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소폭 상승
- _ 정부 신뢰도 : '신뢰' 28%, 소폭 하락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소폭 하락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없다' 75%, 소폭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4%, 5%p 하락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4%, 4%p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2%, 5%p 상승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3%, '고통' 25%, '번창' 11%

■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최고치 89%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47% vs '없다' 53%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1%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3월 3일(금) ~ 3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44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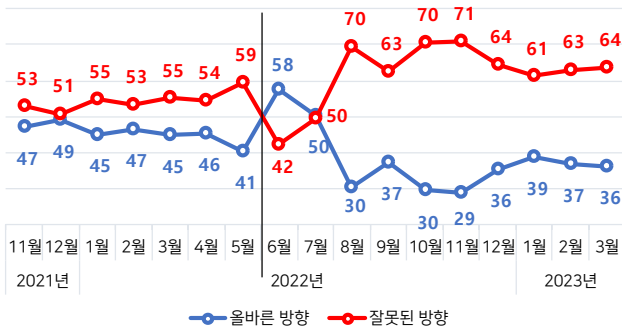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3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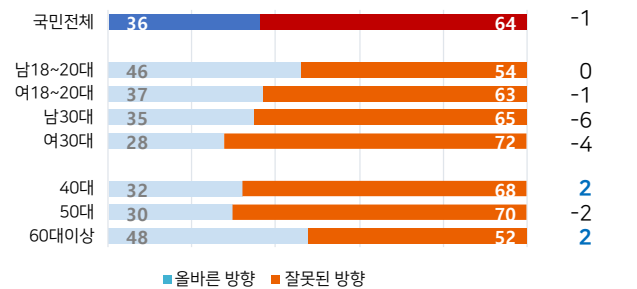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4%, 소폭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2023년 3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6% vs '잘못된 방향' 64%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50대 △경가·인천, 호남 △진보층 △은퇴·무직자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충청 △보수층뿐인 가운데, △남자 20대 △60대 이상 △서울, PK △자영업자, 주부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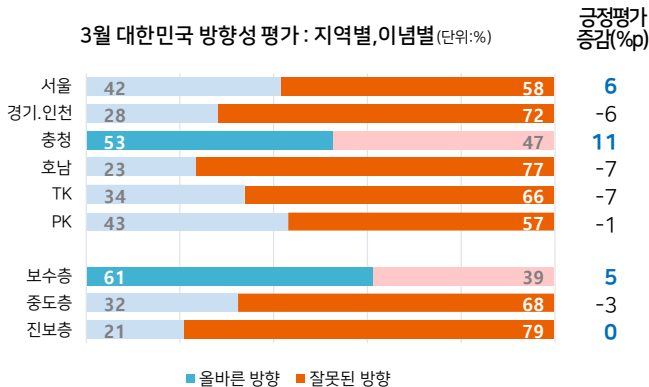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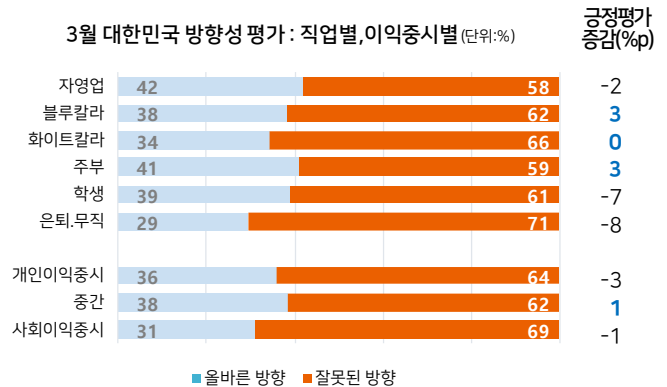
2023년 3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3.05.조사,단위:%)



3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3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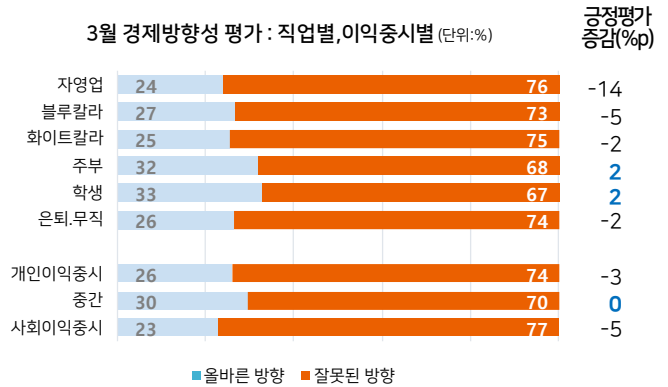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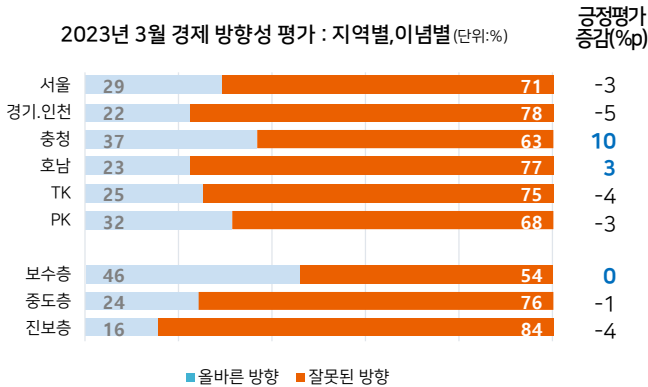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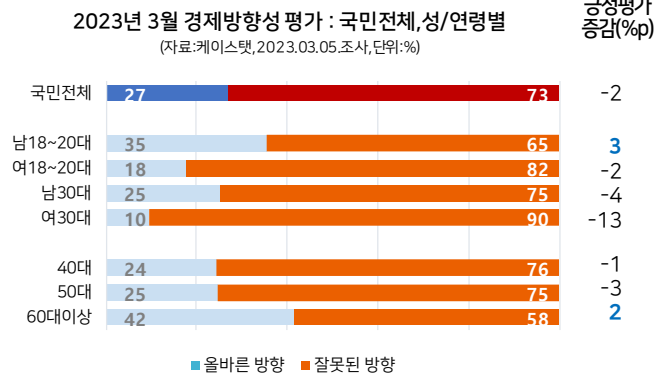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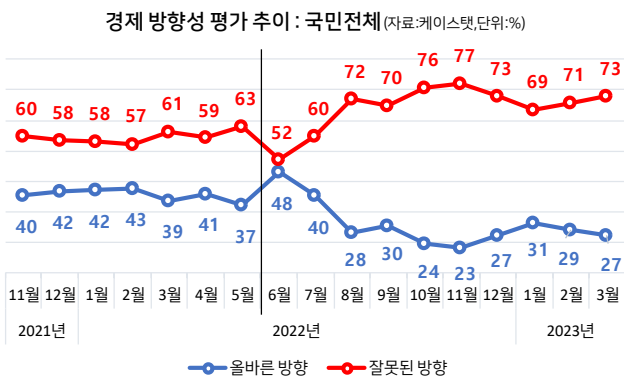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향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미국 국민 방문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여론 귀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3월 2주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p 감소하며 34%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 발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등이 있었음 (자료 : 한국갤럽)
 -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국민의 반일 감정 문제와 얽힌 정부의 대일본 외교는 국민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후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적 성과 및 결과에 따라 국민 여론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소폭 상승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70%를 웃뽀
 - 3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27%, '잘못된 방향' 73%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충청, PK △보수층 △주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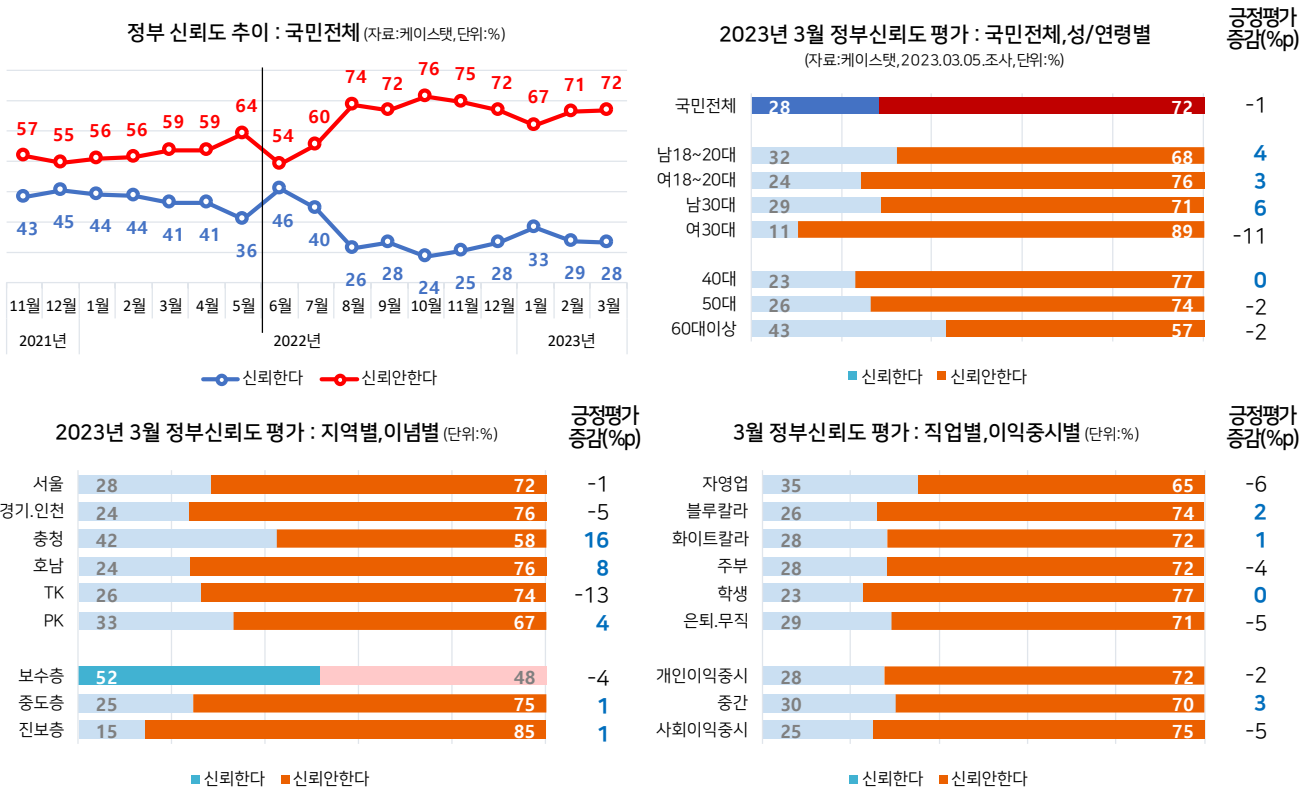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던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뻛지는 양상임
- ☑ 국민의 경제 불안감은 최근 부정적인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됨
 - : 수출은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된 하락세임
 - :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년간 줄곧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역대 최대의 적자 폭(126억 5,000만 달러)을 기록함
 - : 경상수지는 지난 1월 사상 최대 규모인 4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 :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 1월 전월 대비 2.1% 감소했음
- ☑ 이같이 경기둔화 흐름이 가시화함에 따라 다음 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도 7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
 - : 지난 2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7%에서 1.6%로 낮춰 전망함
 - : 이는 작년 5월 2.5%에서 2.4%로 소폭 낮춘 후 8월 2.1%, 11월 1.7%에 이은 네 번째 하향 조정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 대목임

□ 정부 신뢰도 : '신뢰' 28%, 소폭 하락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소폭 하락하며, 최근 2개월 연속 30%대를 밑돌고 있음
 - 3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28% vs '신뢰하지 않는다' 72%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진보층 △학생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충청, PK △자영업자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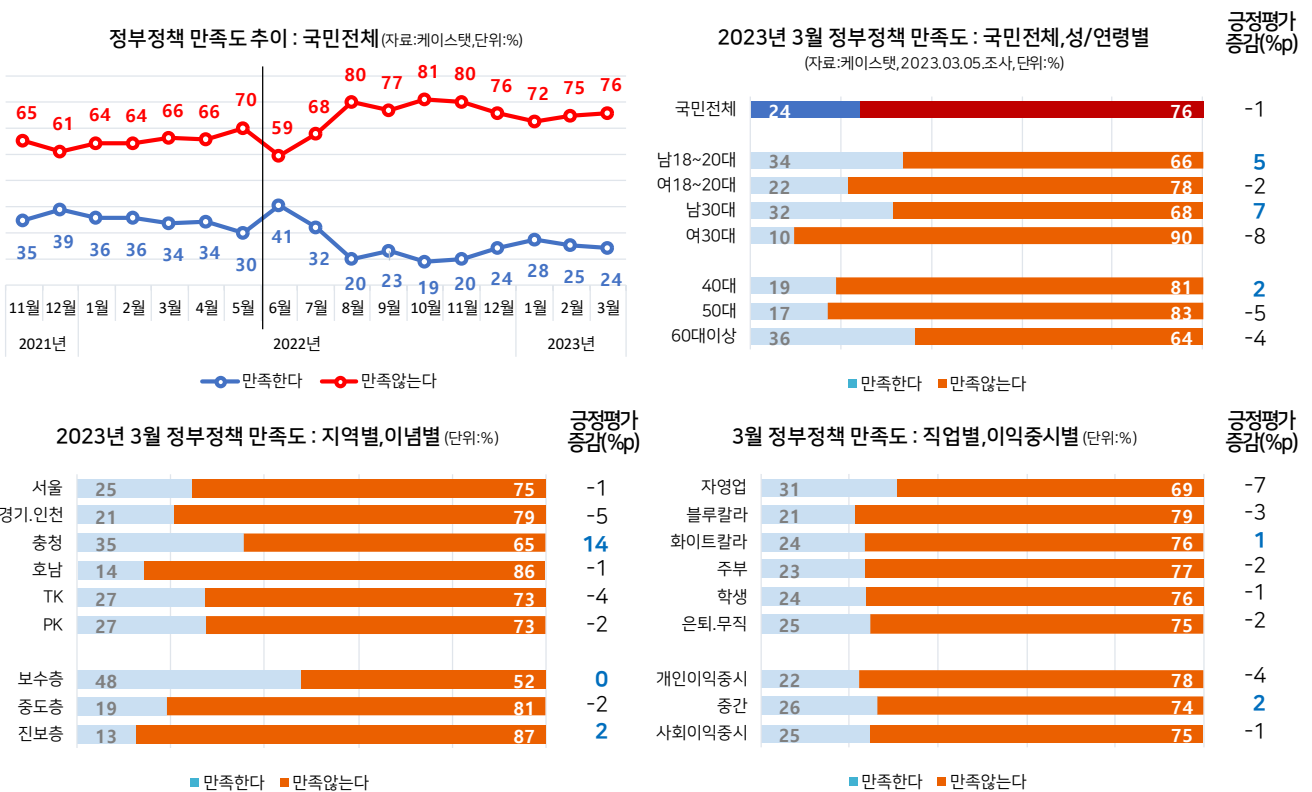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 정부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지속해서 20% 후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번 달만 보아도 '신뢰한다'는 긍정 평가 우위 계층은 보수층뿐이며, 이외 모든 계층은 정부를 불신한다는 부정평가가 우세함
 - ☑ 한편,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지수는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하위권에 속함
 -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의 순위는 조사 대상 국가 167개 중 100위였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으로 글로벌 주요국과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불신도가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음
- ※ 레가툼 번영지수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 신뢰지수에 순위를 매기는 지표임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소폭 하락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소폭 하락한 24%로, 긍·부정 응답의 격차는 52%p에 달함
-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50세대 △중도층,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충청 △보수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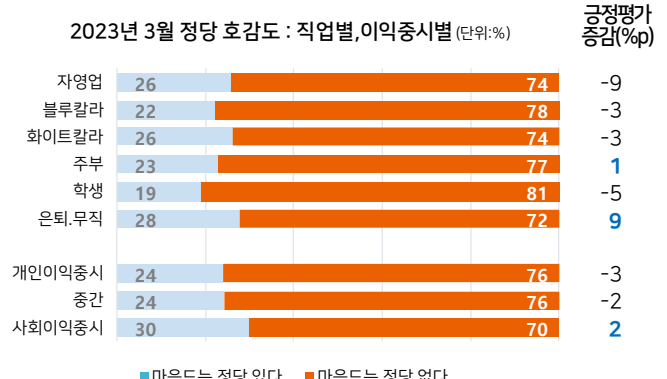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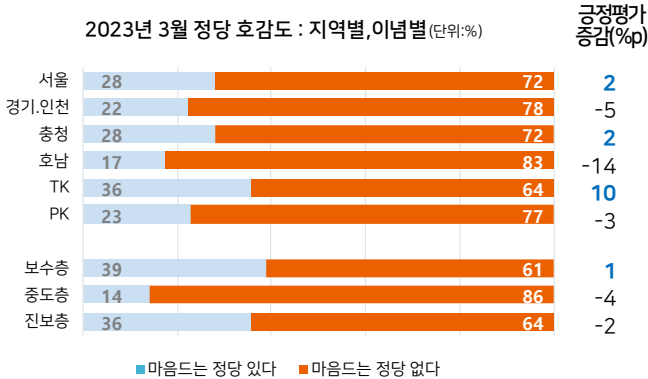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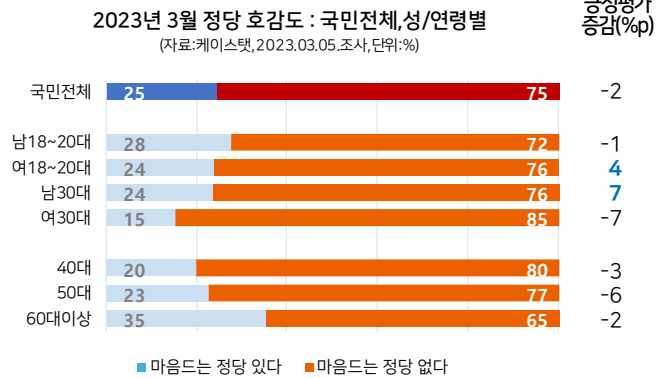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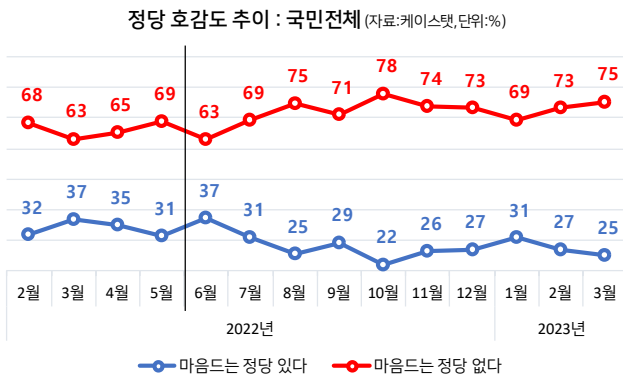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책 만족도는 최근 8개월 연속 20%대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특히 경제·복지 등 국민 삶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지난 2월 한국갤럽의 분야별 정책 평가 조사결과, 긍정평가를 기준으로 '대북 정책' 41%, '외교' 34%, '복지' 33%, '경제' 29%, '교육' '공직자 인사' 23% 등 순으로 나타남
 - '대북 정책' 등 대외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40% 수준으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정작 국민 삶·생활과 관련된 경제·복지·교육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0%대에 불과했음
- ☑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국민과의 정책 소통이 중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작년 11월 정책 평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각 분야의 정책 모두 긍정평가가 오른 점은 고무적이거나, 여전히 정부 정책에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낮음
 - 작년 11월과 올해 2월의 각 분야별 정책의 긍정평가 변화 폭은 '대북 정책' +8%p, '외교' +9%p, '복지' +6%p, '경제' +8%p, '교육' +6%p, '공직자 인사' +4%p와 같았음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없다' 75%, 소폭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2개월 연속 2%p 하락하며, 25%를 기록함
 - 3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5%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5%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40대 △호남 △중도층 △학생 등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TK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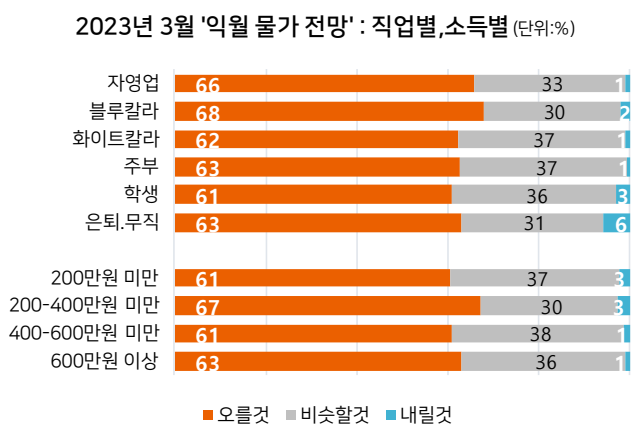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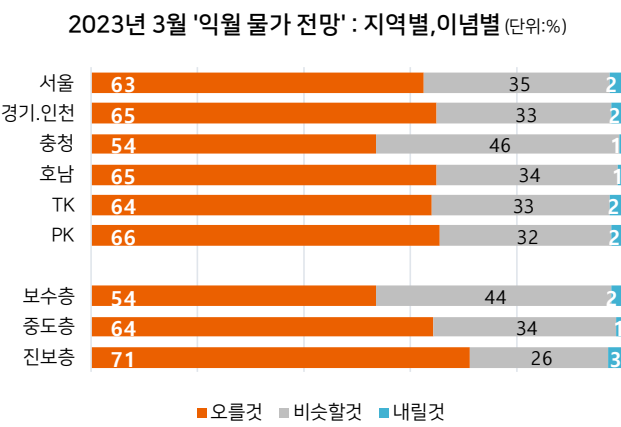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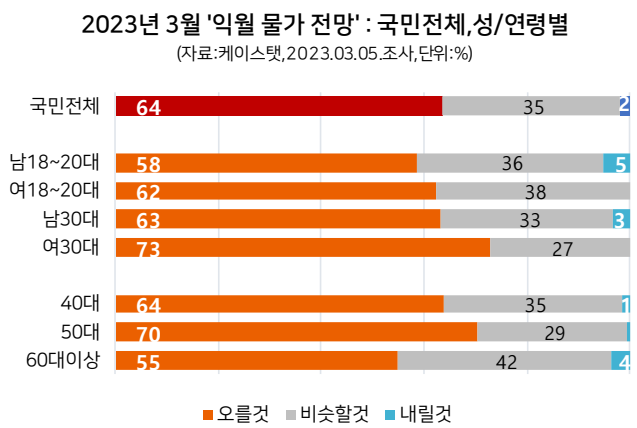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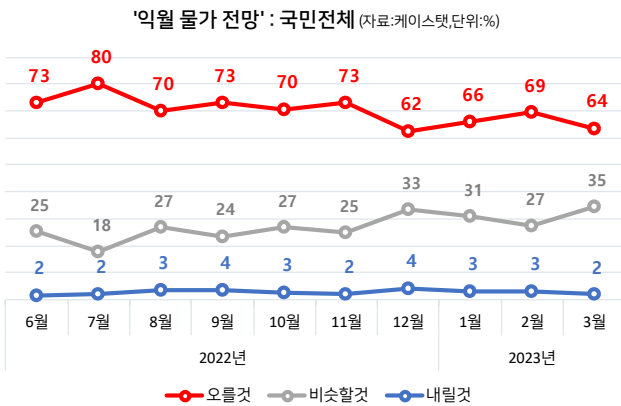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월 대비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는 대폭 하락,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TK는 대폭 상승하며,
 - : 호남(17%)의 정당호감도는 TK(36%)의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두 지역 간 정당 호감도 차이는 19%p로 벌어짐
 - : 또한, 이념성향 보수층은 소폭이지만 정당호감도가 올랐지만, 진보층은 내려감
- ☑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표결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반란표', '방탄국회' 논란 등으로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더 증폭됐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다음 달 더민주당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상승될 여력이 작은 것으로 보임
- ☑ 국민의힘은 더민주당의 상황과 대비되는 가운데,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잠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비판 여론 등과 동조되어 비호감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4%, 5%p 하락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큰 폭(-5%p) 하락하고, '비슷할 것' 응답은 대 폭(+8%p) 상승함
 - 3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4%, '지금과 비슷할 것' 35%, '지금보다 떨어질 것' 2%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50대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충청 △보수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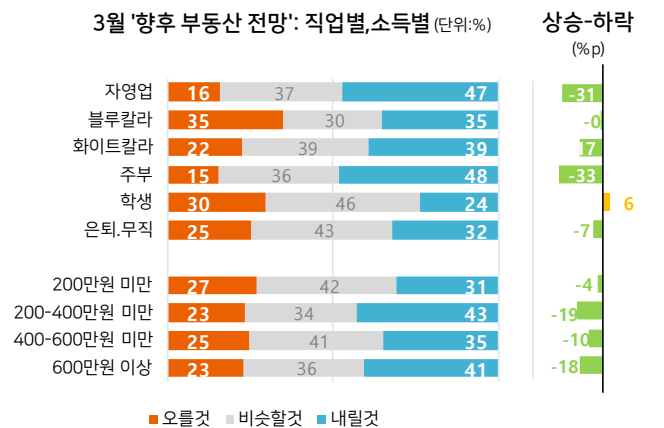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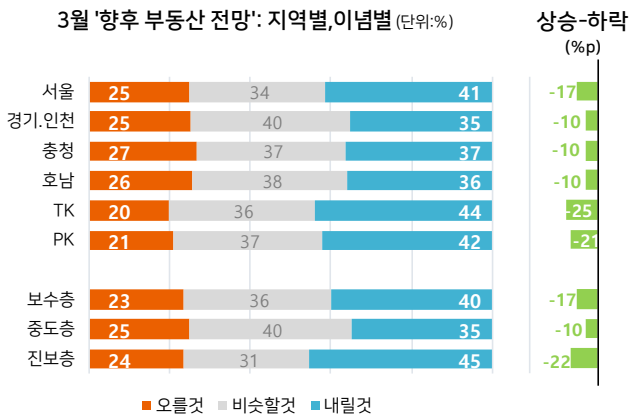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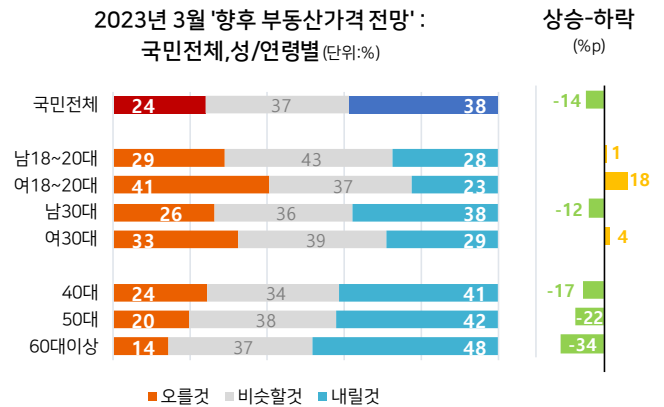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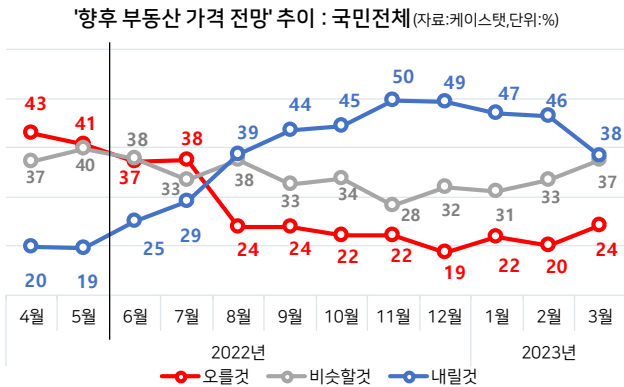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큰 폭 감소,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된 물가상승 전망세가 꺾임
- ☑ 실제로 최근 물가상승률이 5% 아래로 떨어졌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0.4%p 축소하며, 4.8%를 기록함
 - 지난 6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달 물가상승률이 2월에 비해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도 연중 목표 수준인 2%를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4%, 4%p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4개월 연속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하락세를, '비슷할 것' 응답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번 달에 두 응답의 격차가 1%p를 기록함
 - 3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38%,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오를 것' 24%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 △60대 이상 △TK, PK △진보층 △자영업자,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블루칼라, 학생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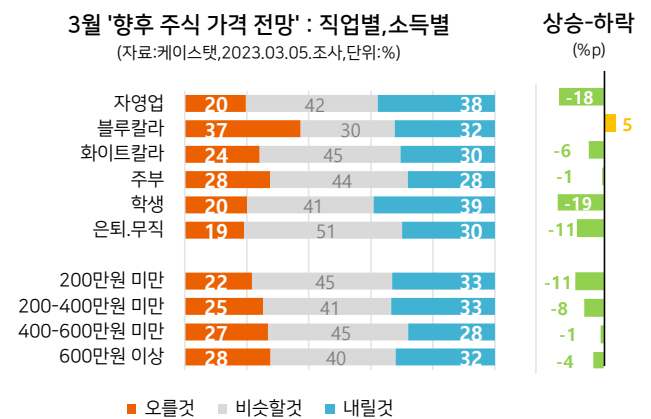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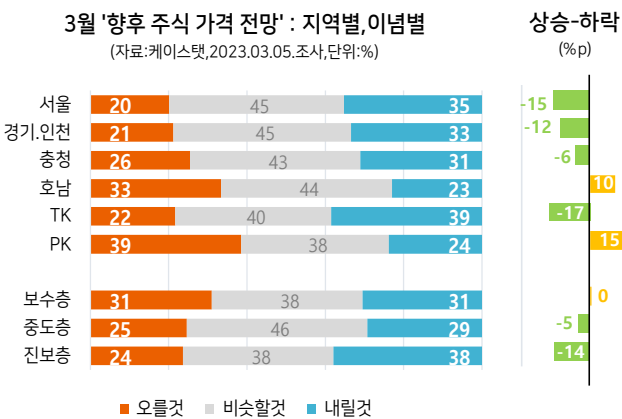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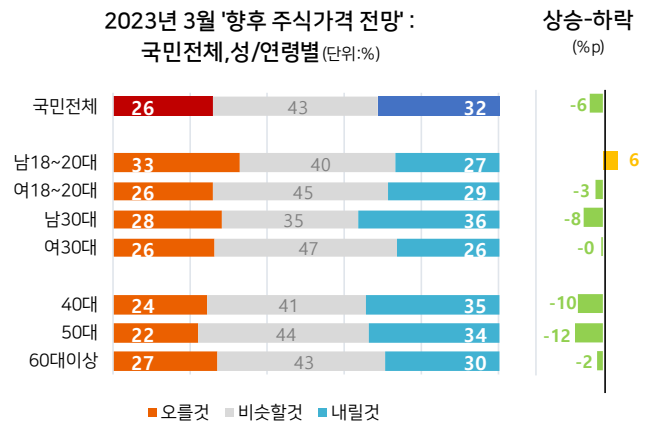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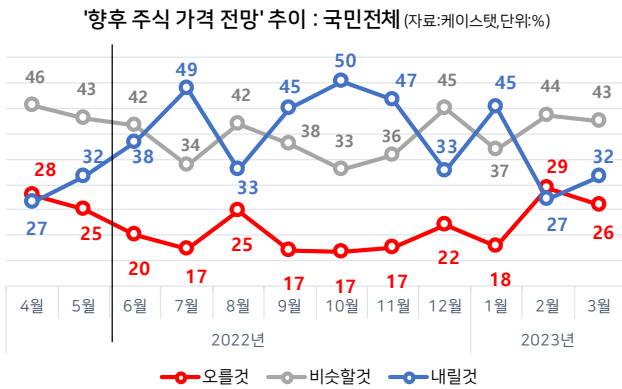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큰 폭 감소하며, 6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옴
 - :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금융권 대출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감소했는데,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보임
 - : 지난 1월부터 3월 첫 주까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매주 하락 폭이 축소함(2월 1주 제외)
 - : 1월 1주 -0.65% → 1월 4주 -0.42% → 2월 1주 -0.49% → 2월 4주 -0.34% → 3월 1주 -0.34%
- ☑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금리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부동산 매매 심리가 온전히 회복될지는 미지수로, 당분간은 시장 관망세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32%, 5%p 상승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이 큰 폭 상승하고,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소폭 하락하며, 주가 하락 전망세가 한 달 만에 다시 우위로 올라섬
 - 3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3%, '지금보다 내릴 것' 32%, '지금보다 오를 것' 26%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식 가격 하락 전망이 높으며, 특히 △4050세대 △서울, 경기·인천, TK △진보층 △자영업자, 학생,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두드러짐
- 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호남, PK △보수층 △블루칼라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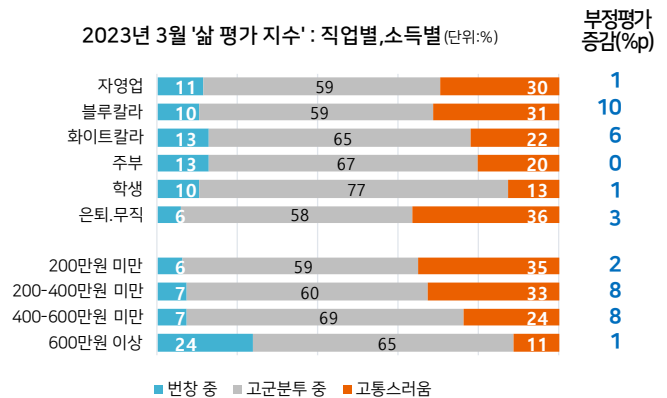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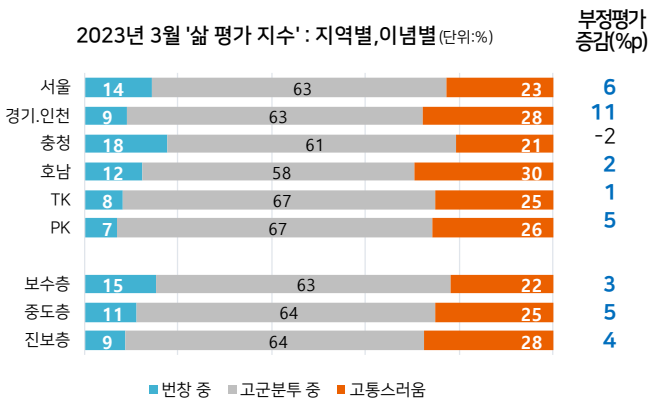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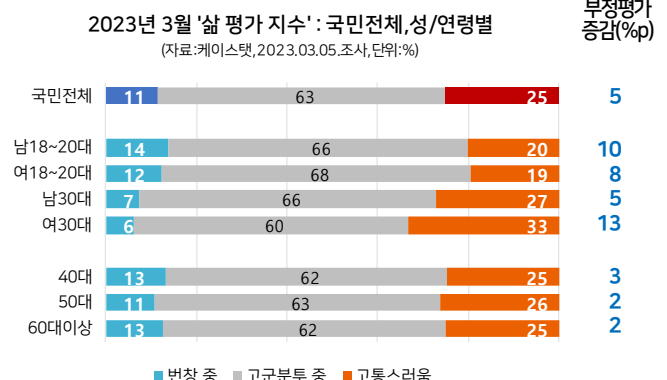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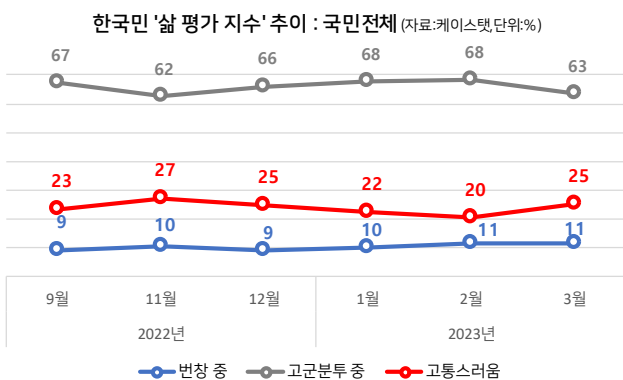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달 급격히 감소했던 '주가 하락' 전망이 이달에는 큰 폭 상승하며,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낙관론을 다시 앞섬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월 2000선에서 2400선으로 올라선 뒤 3월 초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음 : 또한 1월·2월 코스피 시장에서 월간 순매수(1월 약 6조 4,800여억원, 2월 약 8,900여억원)를 기록했던 외국인은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인 2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순매도(약 9100억원) 행렬이 이어졌음
- ☑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됨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3%, '고통' 25%, '번창' 11%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5%p 감소하고, '고통스럽다' 응답이 같은 폭 만큼 상승함
 - 3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3%, '고통스럽다' 25%, '번창하고 있다' 11%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호남 △자영업자,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인 가운데, △충청 △보수층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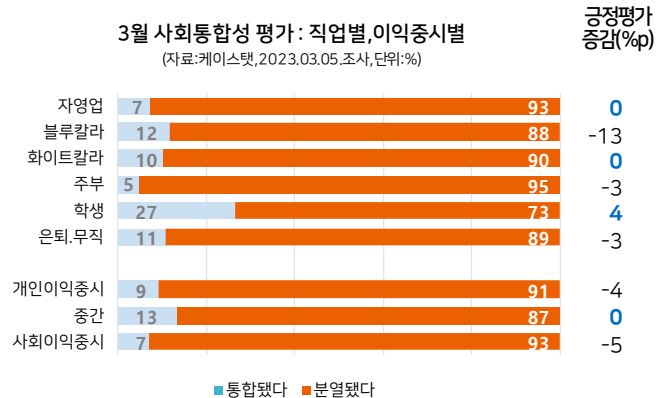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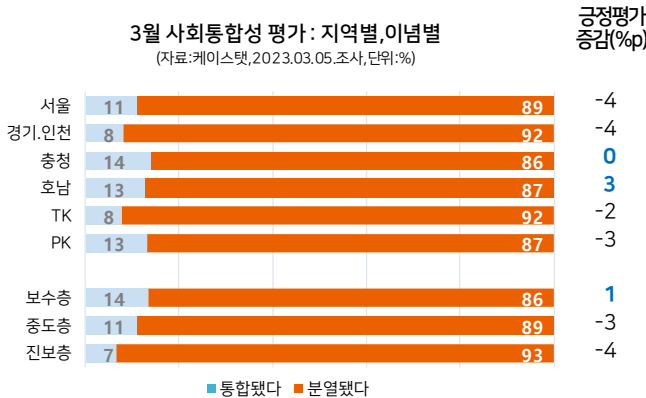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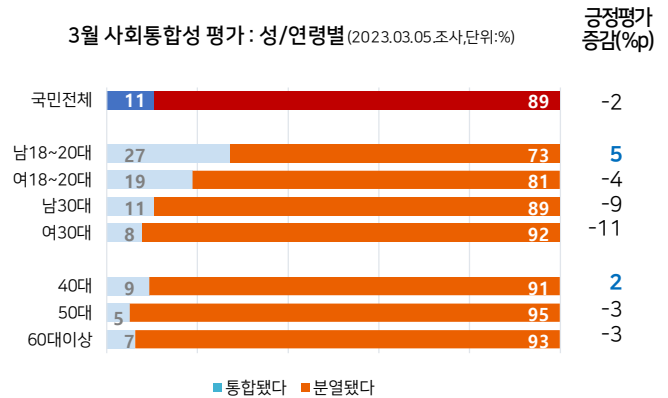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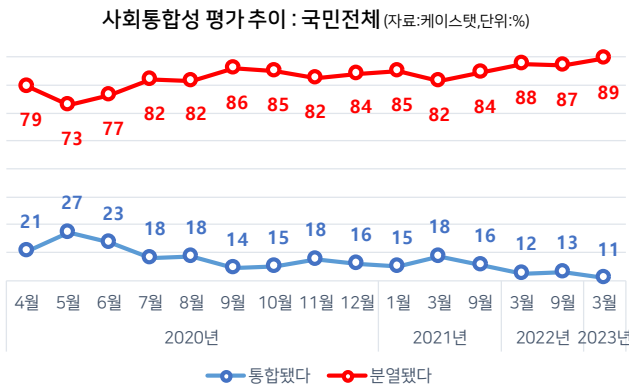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이번 달 큰 폭 증가함
- ☑ 우리 국민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임
 - : 통계청 발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는 2019~2021년 평균 5.9점 (1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평균 6.7점) 가운데 36위에 불과했음

3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최고치 89%

-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응답이 89%로, 작년 3월 이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통합됐다'는 응답이 11%, '분열됐다'는 응답이 89%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50대 이상 △진보층 △자영업자, 주부 △사회이익 증시층 등임
- '통합됐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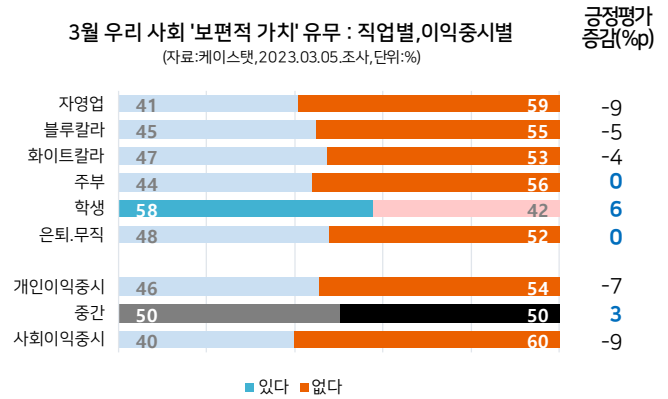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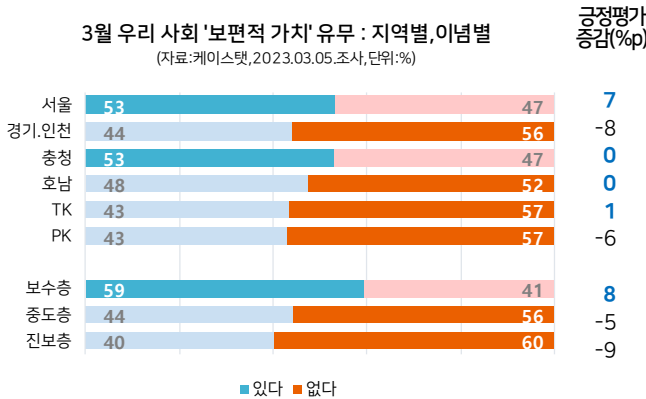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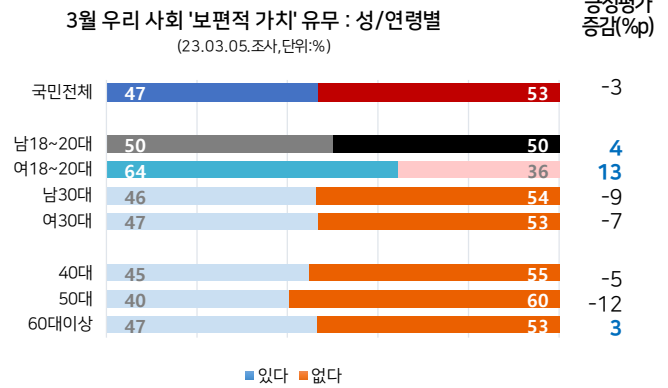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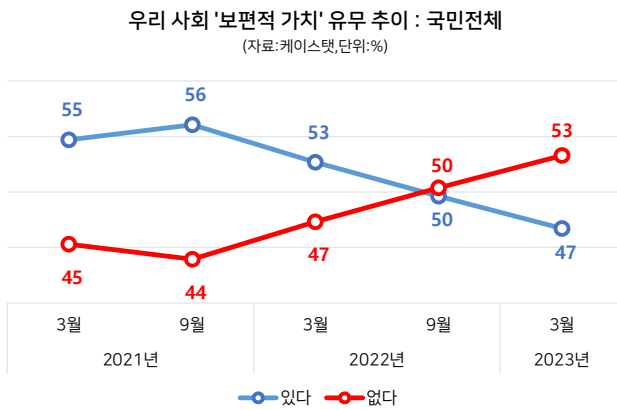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사회통합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2020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이를 그리며, 이번 달 90%에 육박하는 결과를 보임
- ☑ 분열된 사회는 사회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인지하는 우리 사회갈등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 2021년 선진국 17개 각국의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하는 갈등의 심각도에 관한 해외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음

※자료: Spring 2021 Global Attitudes Survey. Q26a-b, d-e.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PEW RESEARCH CENTER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있다' 47% vs '없다' 53%

- 국민통합을 위한 동인 중 하나인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유무에 대해, '없다'라는 응답이 50%를 웃뽀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 47%, '없다' 53%로 조사됨
- 계층별로 응답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18~20대 △서울, 충청 △보수층 △학생 등임
- '없다'는 응답이 두드러진 계층은 △50대 △TK, PK △진보층 △자영업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 한편, 두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중간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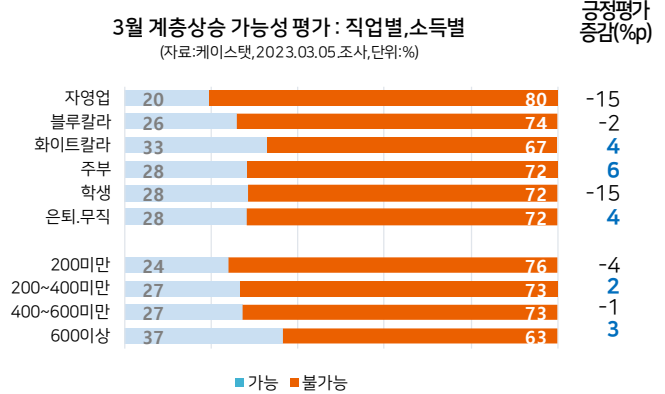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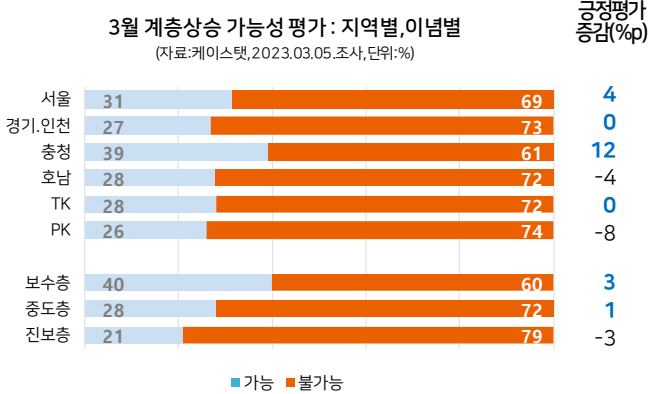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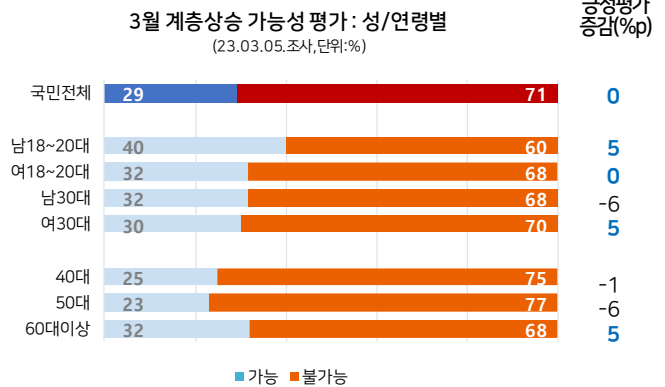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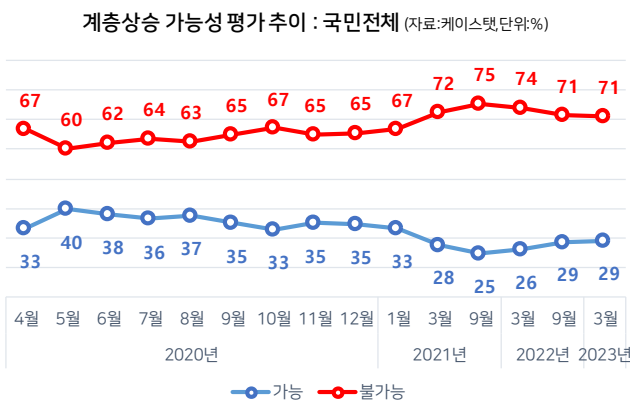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021년 9월 이후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점차 증가한 가운데, 이번 달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공동체가 구성·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방증하는 지점임
-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추창하는 '자유·공정·법치'라는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국민 입장에서 추상적·당위적인 가치로 인식되거나, 혹은 주장에만 그치고 현실은 다르다는 냉소적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1%

- 우리 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작년 9월과 동일한 71%를 기록함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29%, '불가능하다' 71%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4050세대 △진보층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충청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Kstat Point

- ☑ 2021년 3월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70%대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 최근 10년간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국민 기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애로사항 해소, 공교육 강화 등 사회의 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 한국개발연구원(KDI) 발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높다' 응답은 2011년 28.8% → 2021년 25.2%로 감소했으며,
 - :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 응답이 41.7% → 30.3%로 감소 폭이 더 컸음
 - : KDI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가구 내 취업자 증가 등이 중산층으로의 계층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힘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1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1호는 『국민 '소비 가치관' 변화상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3년 3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